

스포츠동아 창간 11주년



12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스포츠스타 11인의 '11년 전 나에게 쓰는 편지' <하> | 아하! 그뻐 그랬지!



프로축구 지소연(첼시 레이디스)



프로야구 서건청(키움 히어로즈)



프로야구 김선빈(KIA 타이거즈)



프로골프 유소연(메디힐)



쇼트트랙 임효준(한국체대)



프로농구 함지훈(울산 현대모비스)

17세 소연아! 메시·첼시·여자월드컵 꼭 기억해!

<별명 지메시>

<프로 소속팀>

<2015 캐나다월드컵 16강·2019 프랑스월드컵>

2008년 3월 24일 스포츠동아는 첫 번째 신문을 선보였다. 11년의 시간이 흘렀다. 2008년 그 때로 돌아가 내 과거를 만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 스포츠동아가 창간한 그 해는 많은 이들에게도 새로운 출발과 도전의 시간이었다. 11년 전 특별한 출발선 앞에 섰던 11명에게 11년 전 자신에게 쓰는 편지를 부탁했다. 11년 전 큰 꿈을 꾸던 신인도 있었고 극심한 슬럼프를 겪은 주인공도 있었다. 긴 시간의 노력으로 이들은 많은 것을 이뤄냈다. 11년 전 자신에게 쓰는 편지는 감동이 있고, 또 어떤 인생지침서보다 선명했다. 스포츠동아는 창간 11주년을 기념해 두 차례에 나눠 스포츠스타 11인의 '11년 전 나에게 쓰는 편지'를 게재한다.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6 ●프로축구 지소연(첼시 레이디스)

17살의 어린 소연아! 큰 부상 없이 열심히 축구할 수 있게 해 줘서 항상 고마워.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잠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2014년에는 꿈에 그리던 유럽 진출도 하게 됐어. 외롭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난 덕분에 잘 버틸 수 있었어. 2015년 영국에서 올해의 선수상 받았을 때는 지금까지의 노력이 조금은 인정받은 것 같아서 너무 뿌듯했고 행복했어. 2015년에는 캐나다 여자월드컵에서 나갔고, 16강 진출하게 된 것도 기억에 남네. 곧 뛰게 될 프랑스 월드컵도 10년 뒤 좋은 기억으로 추억될 수 있도록 후회 없이 열심히 해볼게. 파이팅!



2008 지소연

앞만보고 달렸기에 신고 선수 신화 지금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만 생각

7 ●프로야구 서건청(키움 히어로즈)

열정과 패기가 넘치던 20살의 서건청,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욱 더 앞만 보고 달렸지. 신고 선수의 신화도 지금 와서 기본 좋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막막했거든. 그런데도 앞만 보고 달렸어. 그 때의 나에게 고맙다. '포기하지 말라'는 진부한 말을 당시의 나에게 전하겠



2008 서건청

다. 실제 나는 포기하지 않고 버텼다. 버티고 있으면 기회는 '내일'을 지도 모르니까. 그러니 조금만 더 버텨볼게. 아! 30살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 시절과 똑같은 마음가짐이 있다. 나는 여전히 '후회 없는 하루'를 살고 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어.

18세 프로 데뷔엔 모든 게 어리둥절 지금의 날 만든 건 '골프에 대한 사랑'

8 ●프로골프 유소연(메디힐)

2008년, 겨우 18살이던 소연이는 처음 프로 세계에 데뷔해서 모든 것이 어리둥절하기만 했다. 그래도 11년이 지난 지금, 어릴 적 내가 그토록 꿈꾸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선수로 성장해서 그때의 나에게 편지를 쓴다니 참 신기하고 뿌듯하구나. 어린 나이에도 프로라는 이유만으로



2008 유소연

그에 걸맞은 말과 행동 그리고 좋은 성적을 내야한다는 부담감이 당시의 두려움을 만들지 않았나 싶어. 하지만 내가 그 두려움을 모두 이겨내고 잘 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골프를 사랑하는 마음 덕분이었던 것 같아. 지금의 내가 있게 해준 과거의 나에게 감사하며...

올림픽 첫 4관왕 꿈 끈 열두살 효준아 이제 꿈을 향해 달려가...년 해낼거야

9 ●쇼트트랙 임효준(한국체대)

12살 쇼트트랙 꿈나무 효준아. 고된 훈련에 운동을 그만둘까 고민하고 있나? 고향 대구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녹초가 되도록 운동하고 집에 돌아와선 올림픽에 나온 선수들의 영상을 매일같이 복기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2006토리노올림픽에서 3관왕에 오른 안현수 선배처럼, 한국 쇼트



2008 임효준

트랙의 대명사이자 금메달리스트로 성장해 올림픽 첫 4관왕에 도전하는 꿈을 꿨잖아. 2018평창 올림픽 남자 15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실력을 입증했고, 2019년 세계선수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지. 이제 올림픽 첫 4관왕의 꿈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 넌 반드시 해낼 거야.

스무살 선빈아, 10여년 더 살아보니 가장 와닿는 말은 수비와 체력이다

10 ●프로야구 김선빈(KIA 타이거즈)

2008년은 '고민의 해'였지. 막 20살이 됐을 무렵, 그때의 선빈이는 프로 지명과 대학 진학 사이에서 고민하는 고교 졸업생이었잖아. 프로 지명을 받을 것이라 생각은 못했는데, 감사하게도 KIA의 선택을 받았어. 지금까지 선수생활을 하면서 여러 감독님들과 코칭스태프, 좋은 선배들을



2008 김선빈

만났으니까. 이제 어느덧 30살을 넘었네. 20대 때는 30살을 넘은 선배들이 체력에 관한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크게 와 닿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때의 나에게 '체력'을 말해주고 싶다. 해가 갈수록 체력이 중요하더라고. 수비를 중요하게 따지는 것도 보다 일찍깨우쳤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빠가 되고 살이 된 '모비스 고교 시절' 모든 걸 이기고 여기까지 와줘 고마워

11 ●프로농구 함지훈(울산 현대모비스)

2008년, 지훈이는 프로생활을 막 시작한 신인이었지. 그 때 우리 팀은 '모비스 고등학교'로 불릴 만큼 엄격하고 훈련량이 많았잖아. 매일 새벽, 오전, 오후, 야간으로 정신없이 운동만 했었지. 다시 그렇게 하라면 절대 못할 거야. 그래도 하루하루를 이



2008 함지훈

기고 견뎌내고 버텨내면서 여기까지 왔네. 다 빠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그 덕분에 지금의 함지훈이 있었던 것이니까. 그래도 더 여러 가지로 더 노력을 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 그래도 고맙다. 2008년 지훈아!

신한, 페이의 판을 다시 짜다

어떻게 사는지 보이는 타임라인 [TimeLine]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How to live]를 보면 어떻게 사는지[How to buy]를 알 수 있습니다. 결제 히스토리를 타임라인으로 보고 타이밍에 딱 맞는 혜택을 드리는 신한PayFAN. 당신도 경험해보세요.



AM 10:00 #북성대아미트 #막으려고운동해요



PM 02:00 #기구광장 #미구역의금손님



PM 07:00 #분위기정해 #막막요정



신한PayFAN 친한 고객이 선택한 신한PayFAN은 간편 결제 서비스를 넘어, 매 순간 변화하는 고객의 생활에 따라 맞춤 혜택을 드리는 친화적인 생활결제 플랫폼입니다. 편리한 금융조회와 상담서비스, 끊임 없는 다양한 플랫폼의 연결로 Pay의 새로운 FAN을 만들어갑니다.

새로워진 신한Pay FAN을 경험해보세요

- 송인알림은 기본, 혜택까지 실시간으로 - Timeline 카드사용 혜택알림 서비스
- 필요한 기능을 원하는 대로 셀프메뉴 구성 - DIY 메뉴 구성
- 금융, 상담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 초기화면에서 결제, 금융, 상담까지
- 다양한 서비스를 끊임 없이 연결 - 로그인이 필요 없는 원웹서비스

Lead by 신한카드